

'26.3월 금융시장 전망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26.3월 금융시장 전망

01 2월 리뷰

- AI 투자 모멘텀 약화되며 미국은 부진,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소재/산업재 관련 국가는 견조
- AI Disruption 부각되며 국가 및 섹터에서 주가 차별화 나타나 * [국가] 한국, 대만, 일본 [섹터] HW ↔ SW
- 빅테크 내에서도 AI 경쟁력 및 투자 대비 수익성에 따라 차별화 : 메타/MSFT ↔ 구글/아마존

02 미국 주식시장

- 과거와는 다르게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상향에도 순이익 상향 부재
 - ① 병목 내러티브 지속: Core P/F는 반도체와 AI전력 * 에너지, 소재, 산업재로 P/F 확장 가능 (원자재 가격 중요)
 - ② 빅테크 주가는 더 이상 CAPEX에 반응 X * 사업전략에 따른 Winner 결정과 압축 성장 : AMZN 및 GOOGL
 - ③ 대형 IPO의 수혜는 빅테크, 유동성 흡수는 주의 * 오픈AI와 엔트로픽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염두
 - ④ AI Disruption 내 옥석 가리기와 AI 폼팩터 변화 * 물리적AI 반등 > 바닥 다지는 산업특화AI > S/W 하락
- 차별화 및 로테이션 국면에서는 지수 플레이 보다는 섹터플레이 전략이 유효하다 판단
 - * 7,600pt를 밴드 상단으로 제시(상승 여력: +11%, 기존 7,900pt에서 하향) 투자 의견은 OW 유지

03 국내 주식시장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 상승 주도 : 2월 이익 상향조정 강도 소폭 완화
- [수급] 밸류 플레이어 외국인, 적극적 매수세 기대 ↓ : 증시 상승 주도한 개인 (개인 금융자산 이동)
- 반도체의 Cyclical적 성격으로 이익 변동성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익 및 ROE 변동성 규모는 크지 않을 것
- ①가계 금융자산 이동, ②코리안 디스카운트 완화 정책(상법개정, 배당정책) 등으로 장기 자기자본비용 하락 전망
- 밴드 상단을 EPS +5% 상향 및 PER 10.3배 적용 6,900pt로 제시 * 이벤트 및 반도체セン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Agenda

01 | 미국 주식시장 전망

02 | 국내 주식시장 전망

03 | 글로벌 주식 Hous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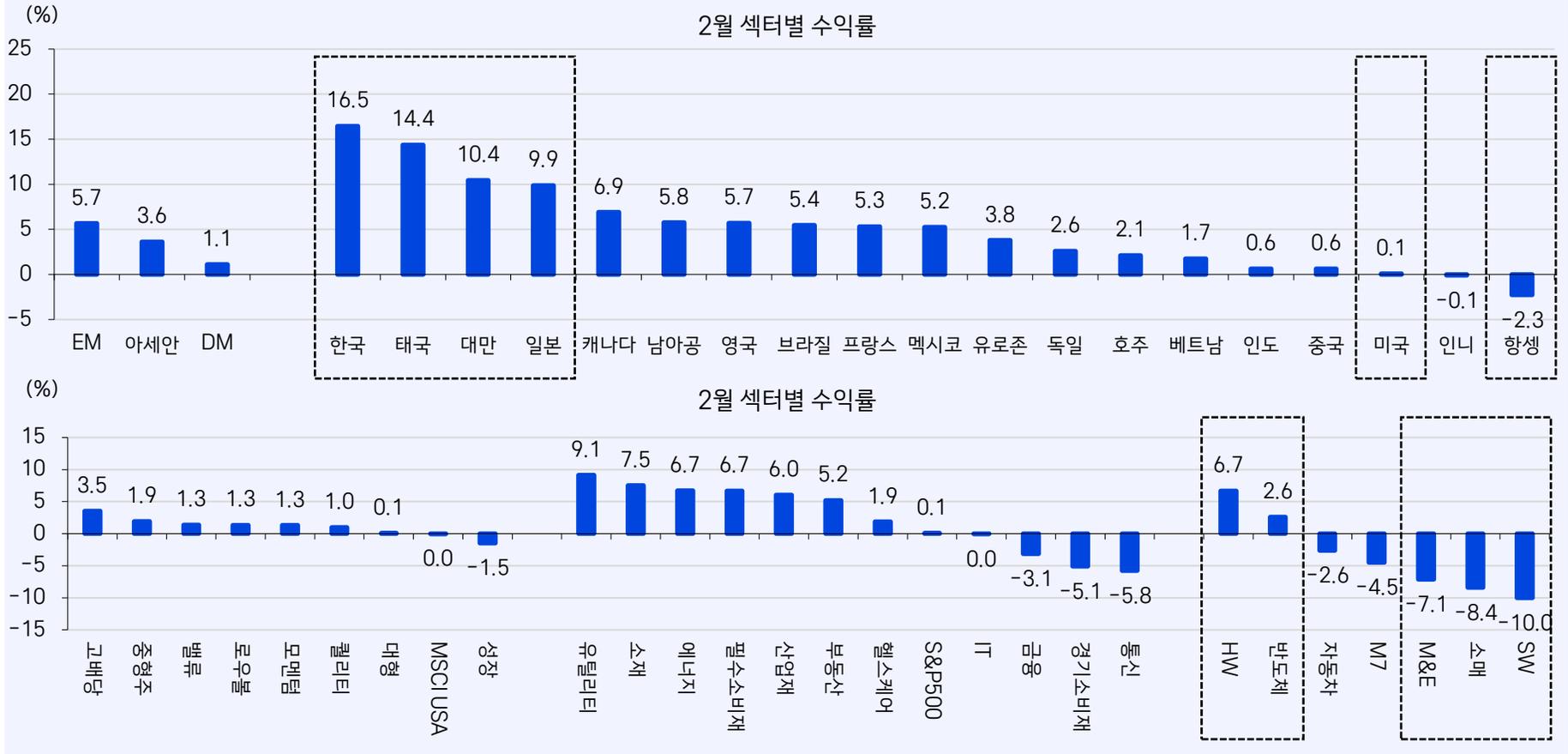


'26.3월 금융시장 전망
미국 주식시장 전망

[리뷰] 글로벌 증시 및 미국 섹터별 수익률

'26.3월 금융시장 전망

섹터 및 국가별 수익률에서 HW ↔ SW의 주가 차별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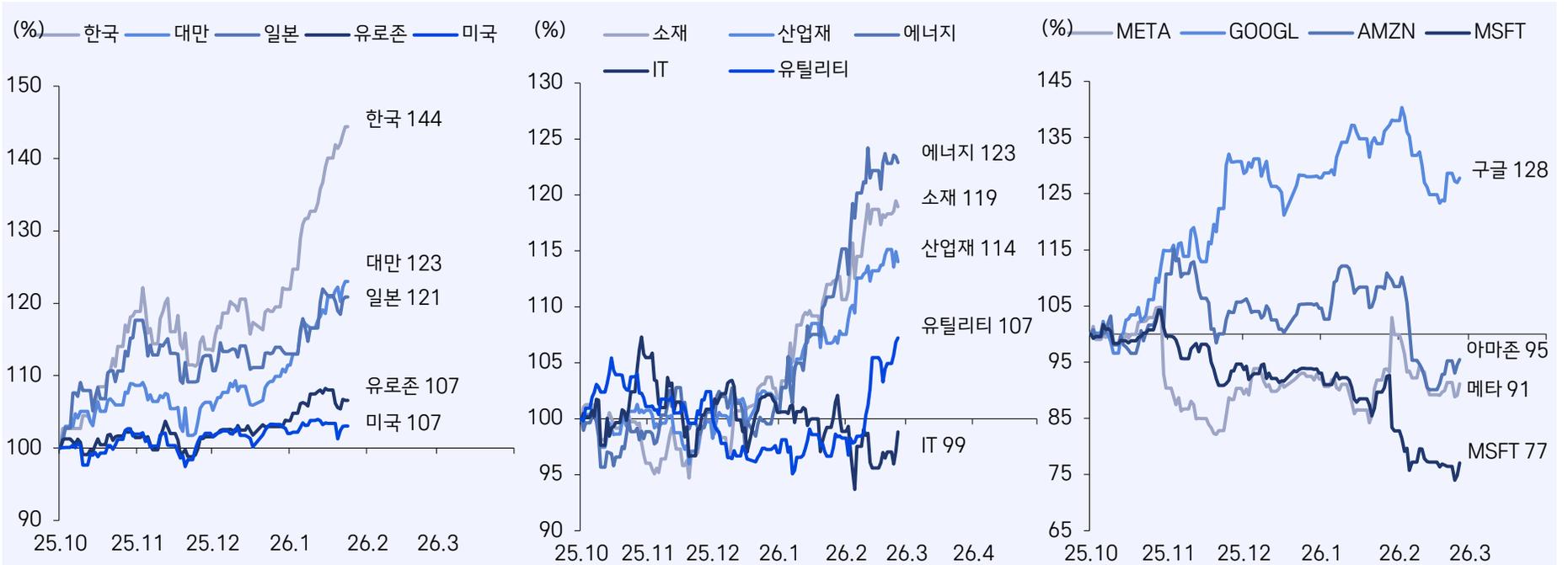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로테이션 확인되는 미국 증시 (섹터, 빅테크, 스타일)

'26.3월 금융시장 전망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확인되는 주가 차별화

- AI 투자 모멘텀 약화되며 미국은 부진,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소재/산업재 관련 국가는 견조
- AI Disruption 부각되며 국가 및 섹터에서 주가 차별화 나타나 * [국가] 한국, 대만, 일본 [섹터] HW ↔ SW
- 빅테크 내에서도 AI 경쟁력 및 투자 대비 수익성에 따라 차별화 : 메타/MSFT ↔ 구글/아마존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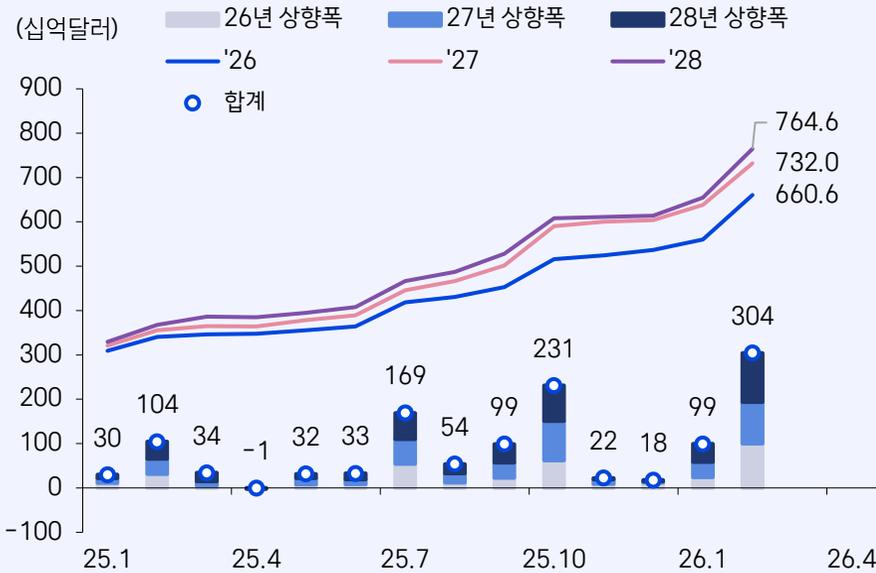
과거와 다른 CAPEX 및 순이익 컨센 관계

'26.3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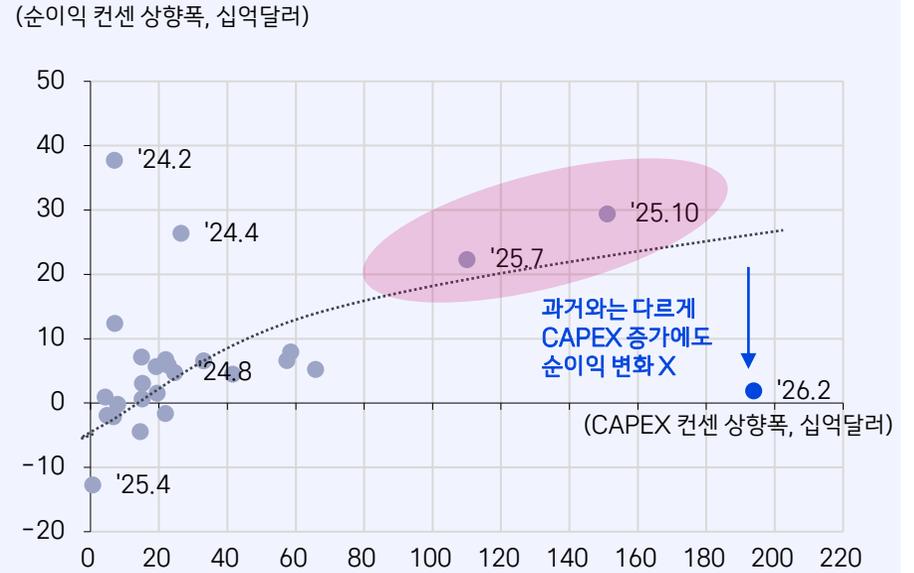
과거와는 다르게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상향에도 순이익 상향 부재

- 과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상향조정은 순이익의 상향조정과 동반되는 모습을 보임
- 2월 들어 '26년 및 '27년 CAPEX는 각각 6,606억달러(+1,000억달러 상향), 7,320억달러(+940억달러 상향)로 큰 폭 상향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순이익은 24억달러 상향, 27년 순이익은 5억달러 하향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컨센서스 추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순이익 및 CAPEX 컨센서스]



주: 하이퍼스케일러 AMZN, GOOGL, META, MSFT, ORCL, 전력 ETN, GEV 기준
 주: 2월 2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① 병목 내러티브 지속: Core P/F는 반도체와 AI전력

'26.3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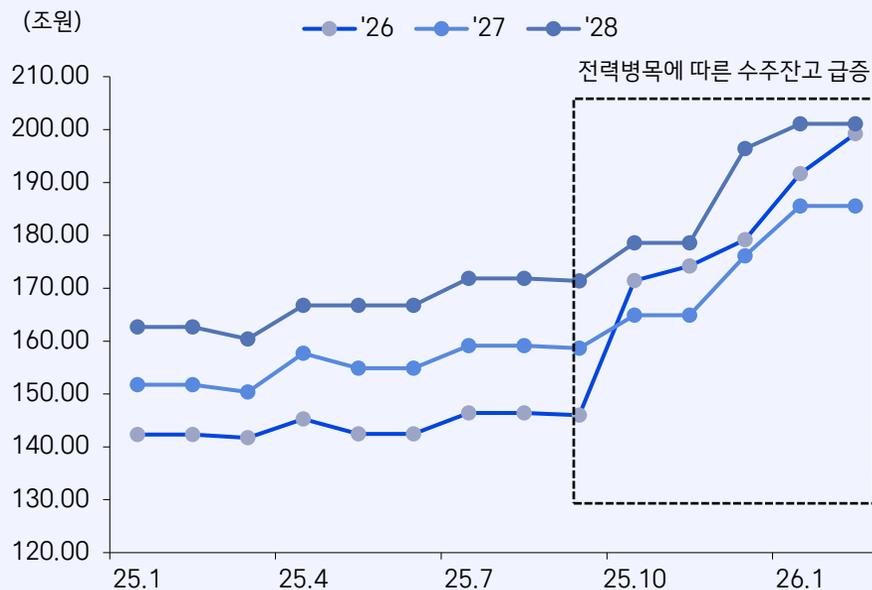
Capex 상향조정에 반응한 AI인프라(반도체와 전력)

- AI수익성 우려에 순이익의 상향조정은 부재했으나, 역대급 Capex 지출 컨센서스 형성으로 병목 내러티브 강화
-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및 미국 AI전력, 인프라 기업의 주가는 지속 상승 → AI SW와 HW의 차별화 요인
- * 재무재표상으로도 한국 반도체 이익 상향 및 AI전력 회사의 수주잔고 상향조정세 나타나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와 삼성전자 주가]



[전력회사 연간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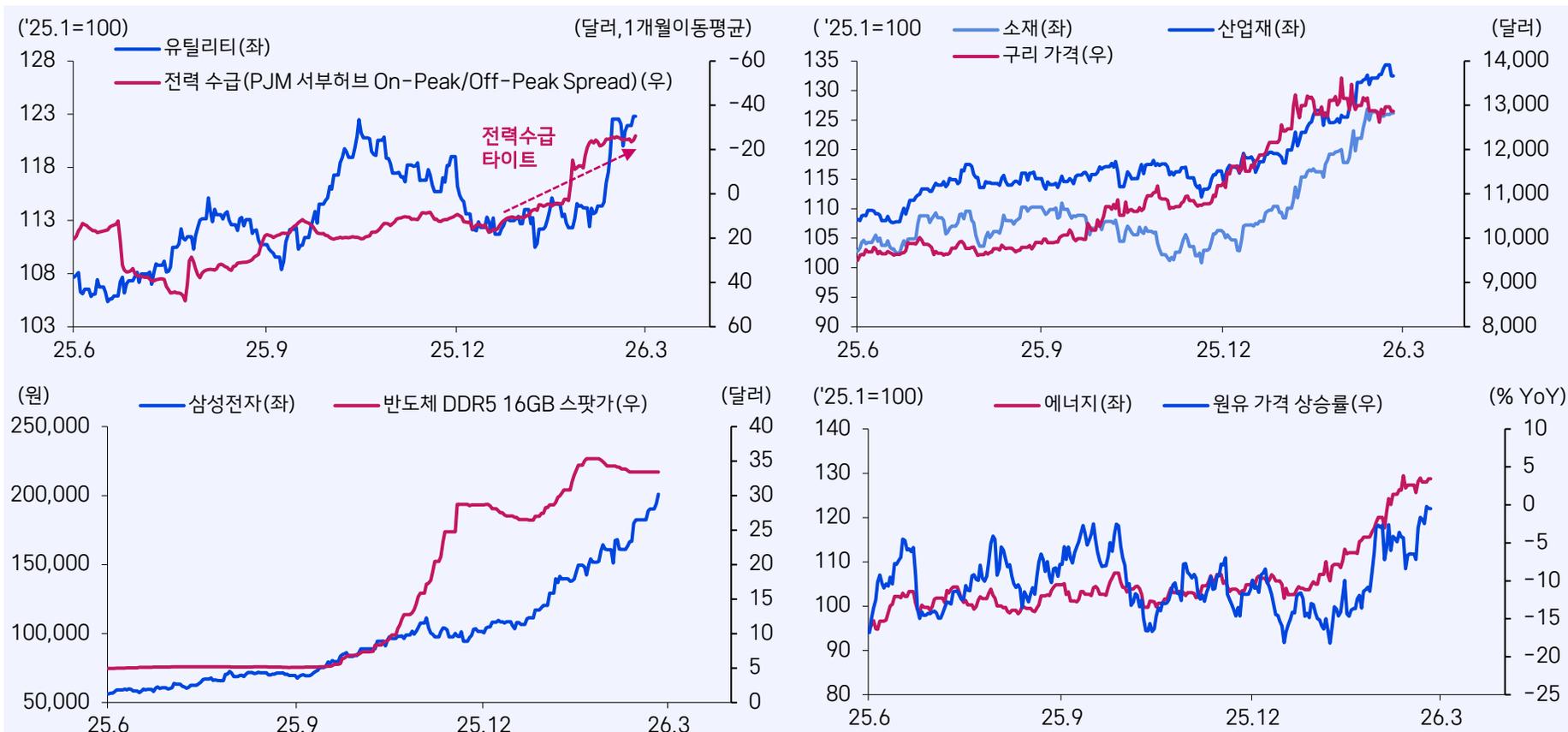


주: 하이퍼스케일러 AMZN, GOOGL, META, MSFT, ORCL, 전력 ETN, GEV 기준
주: 2월 24일 기준,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에너지, 소재, 산업재로 P/F 확장 가능 (원자재 가격이 중요)

'26.3월 금융시장 전망

시병목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바, 관련 섹터로의 상승 모멘텀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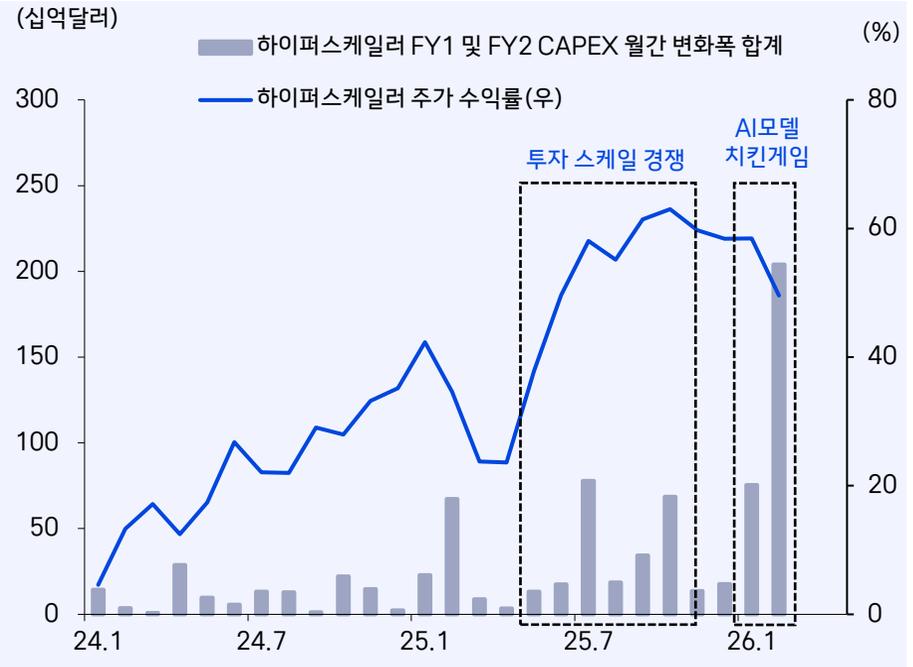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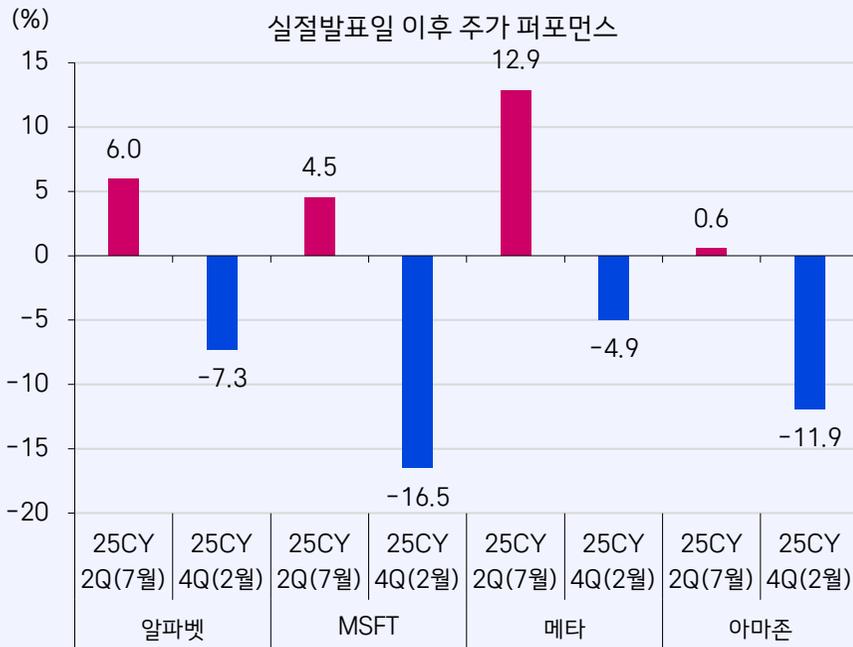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② 빅테크 주가는 더 이상 CAPEX에 반응하지 않아

'26.3월 금융시장 전망

시장은 데이터센터 구축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 판단, 이제는 수익화 증명을 요구

- 지난 25년 2분기 실적시즌(7월)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상향조정 소식에 주가 상승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실적발표 시즌에서는 Capex 상향 소식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 기존에는 AI시장 확장에 따른 투자 스케일 경쟁이 주요 증시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AI 확장/적용 치킨게임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



주: 하이퍼스케일러 AMZN, GOOGL, META, MSFT, ORCL, 전력 ETN, GEV 기준
 주: 2월 2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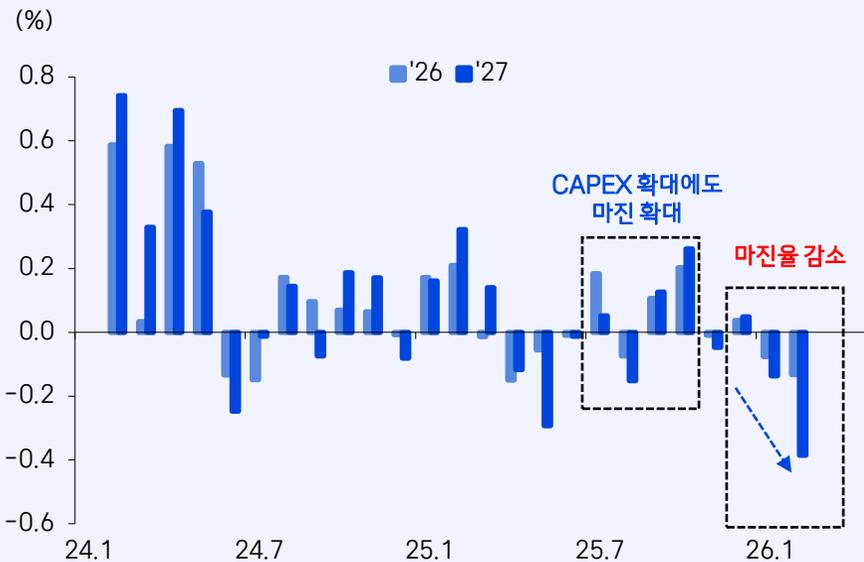
투자 경쟁 (시장 파이) → 수익 경쟁 (적용/확산) → 시장 독점

'26.3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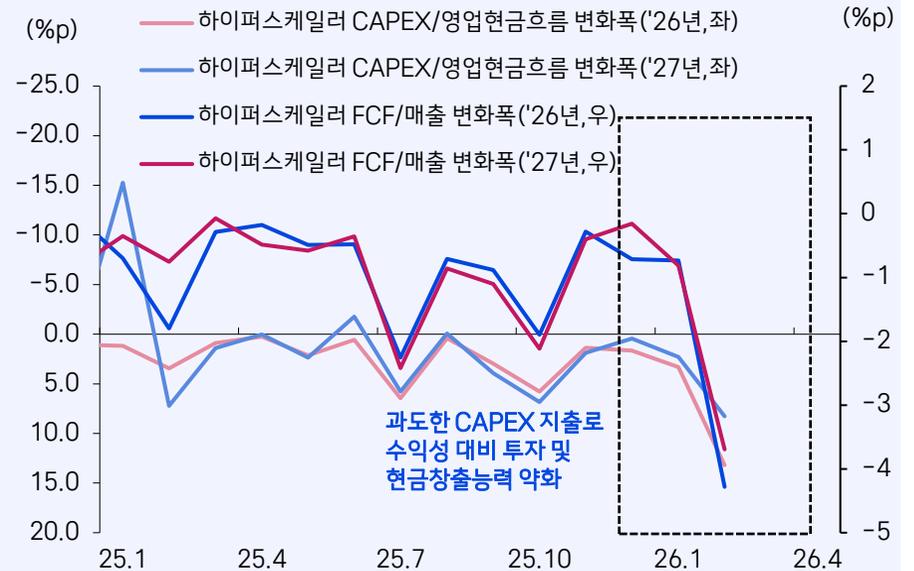
AI 적용/확산에 따른 수익 경쟁 국면에서는 수익성 지표가 우위한 빅테크가 유리

- 투자 스케일 경쟁 과정 중 부작용인 병목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마진은 감소
- 이에 따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CAPEX/영업현금흐름) 및 현금창출능력(FCF/매출) 등이 악화
- AI 적용/확산에 따른 수익 경쟁 국면에서는 동 지표에서 우위를 점한 빅테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우위할 전망

[하이퍼스케일러 마진을 컨센서스 변화폭]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능력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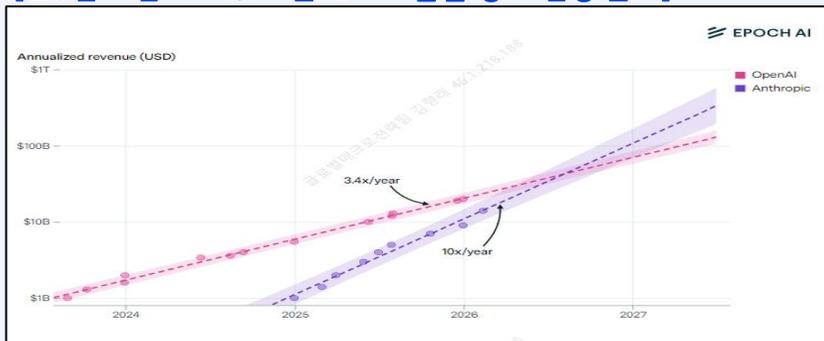
주: 하이퍼스케일러 AMZN, GOOGL, META, MSFT, ORCL, 전력 ETN, GEV 기준
 주: 2월 2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사업전략에 따른 Winner 결정과 압축 성장

'26.3월 금융시장 전망

B2B 성공과 밴더 종속성: 엔트로픽 유리

[26년 하반기 이후 오픈AI의 매출을 상회 전망 존재]



[B2B 사업 진출에 성공한 클라우드: 밴더 종속성 기대]

구분	주요기업	차별화 전략
인프라 및 플랫폼 중심	AWS, 알파벳	- 구글, AI브라우저 (Project Jarvis) 출시 - 아마존, 물류/공급망 자율 처리 에이전트 (Nova Act) 출시 - 아마존, 기업맞춤형 인프라 관리 에이전트 출시 (AWS Bedrock AgentCore)
전문성 중심	Anthropic 오픈AI, xAI, MSFT	- Claude cowork로 워크플로우 자동화 Agent 출시 - Claude Code: 개발자용 코딩 환경 구축 - OpenAI, B2B 사업 생태계 구축 (ChatGPT Enterprise, CODEX툴 출시) - xAI, 테슬라 FSD 데이터 기반 물리세계 추론 강화 - MSFT, 보안 관제 자동화 솔루션 등 산업 전문 Agentic 공급 (Agentic SOC)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AI Epoch,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수직계열화에 따른 주가 차별화

- 기업의 AI 생태계 구축 전략의 차이가 주가 차별화로 이어져
- **Everything Rally → AI 확장 경쟁 → Winner의 압축성장**
- 현재 알파벳(구글) 수직계열화에 따른 비용 경감 부각

[구글(TPU) 진영의 주가 성과가 우수]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AI Epoch,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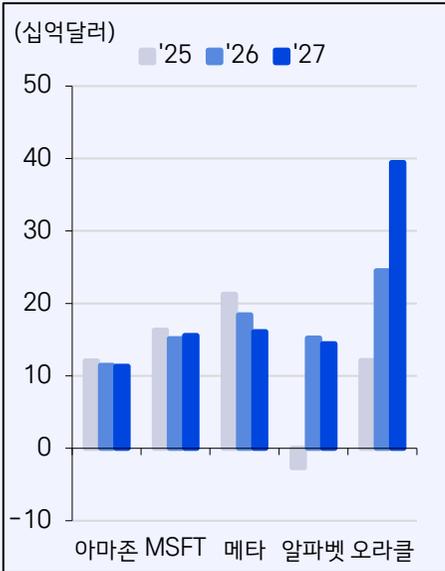
※ Winner의 성적표는 매출/영업현금흐름/마진율

'26.3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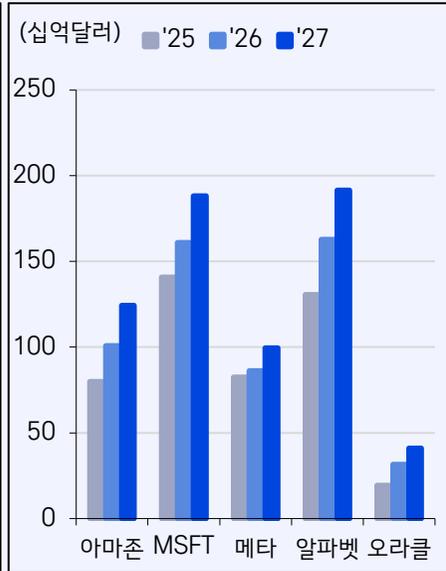
사업전략 차이에 따른 빅테크 수익성/주가 차별화 전망

- 현재는 AI 사업 전략(수익구조, 밸류체인 등)에 따른 수익성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
- 하반기 AI 사업전략에 따른 매출/영업현금흐름/마진율 등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잉여현금흐름 및 마진율 등 고려 아마존과 알파벳의 성적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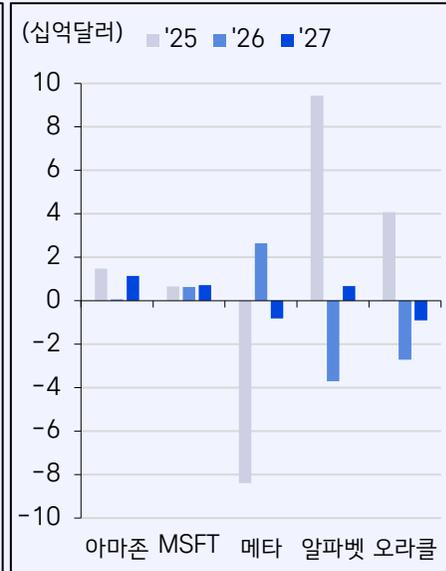
[매출 증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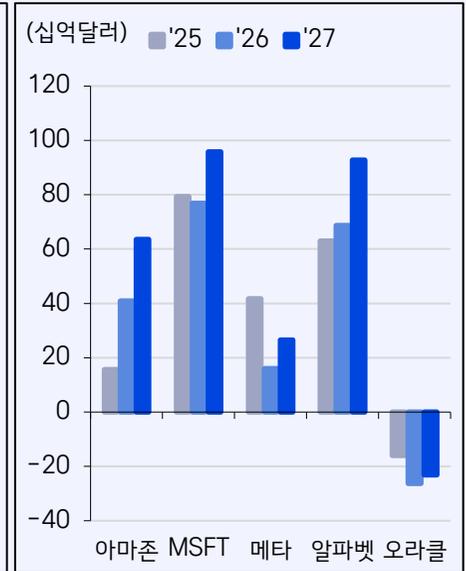
[영업현금흐름]



[마진율 변화]



[잉여현금흐름]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③ 대형 IPO의 수혜는 빅테크, 유동성 흡수는 주의

'26.3월 금융시장 전망

IPO에 따른 지분재평가 Winner는 MSFT, 엔트로픽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염두

- LLM기업의 자금 소모 구조상 IPO는 생존전략의 핵심 : 증시측면에서 대형 IPO의 유동성 흡수 vs 지분 보유 빅테크 기업의 가치 상승
- 지분가치 기준으로 오픈AI를 보유한 MSFT가 상대적 우위
- 한편 최근 엔트로픽의 오픈AI 매출 역전 가능성 및 현금창출능력 개선 등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도 염두

진영	AI기업(상장)	주요 지분율 구조	주요 전략적 파트너(SAP)	예상/목표 기업가치
MSFT	OpenAI	MSFT(28%) , 재단(26%), 엔비디아, 기타(47%)	MSFT,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8,500억~\$1조
	Figure AI	파크웨이, MSFT, 엔비디아, 아마존, 삼성, 인텔, 등 연합 통한 전략적 투자	MSFT, 엔비디아, 오픈AI	\$390억~\$450억
구글	Anthropic	아마존(33%미만 추정), 구글(14%)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3,800억
	SpaceX	일론 머스크(42%), 구글(7%)	xAI(합병), 구글, 피델리티	\$1.25조~1.5조
그외	보스톤 다이내믹스	현대차그룹(80%), 소프트뱅크(20%)	현대차그룹(제조), 구글(AI)	\$700억~\$900억
	Data Bricks	기관(75~80%), 창업자(20~25%)	a16z, 엔비디아, CapitalG	\$1,34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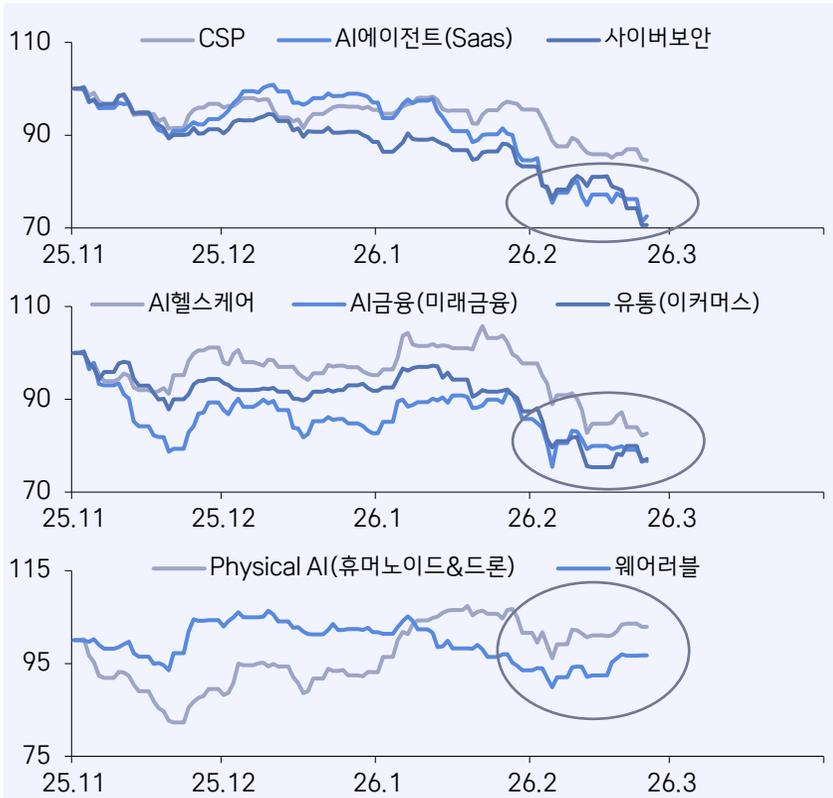
주: 2월 23일 기준, 자료:Bloomberg, Reuter, 언론보도,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④ AI Disruption 내 옥석 가리기와 AI팩터 변화

'26.3월 금융시장 전망

AI Disruption 내 옥석 가리기

물리적AI 반등 > 바닥 다지는 산업특화AI > S/W 하락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가시권에 있는 폼팩터 변화

[인터페이스전환] 웨어러블의 비정형 입력 중심 인터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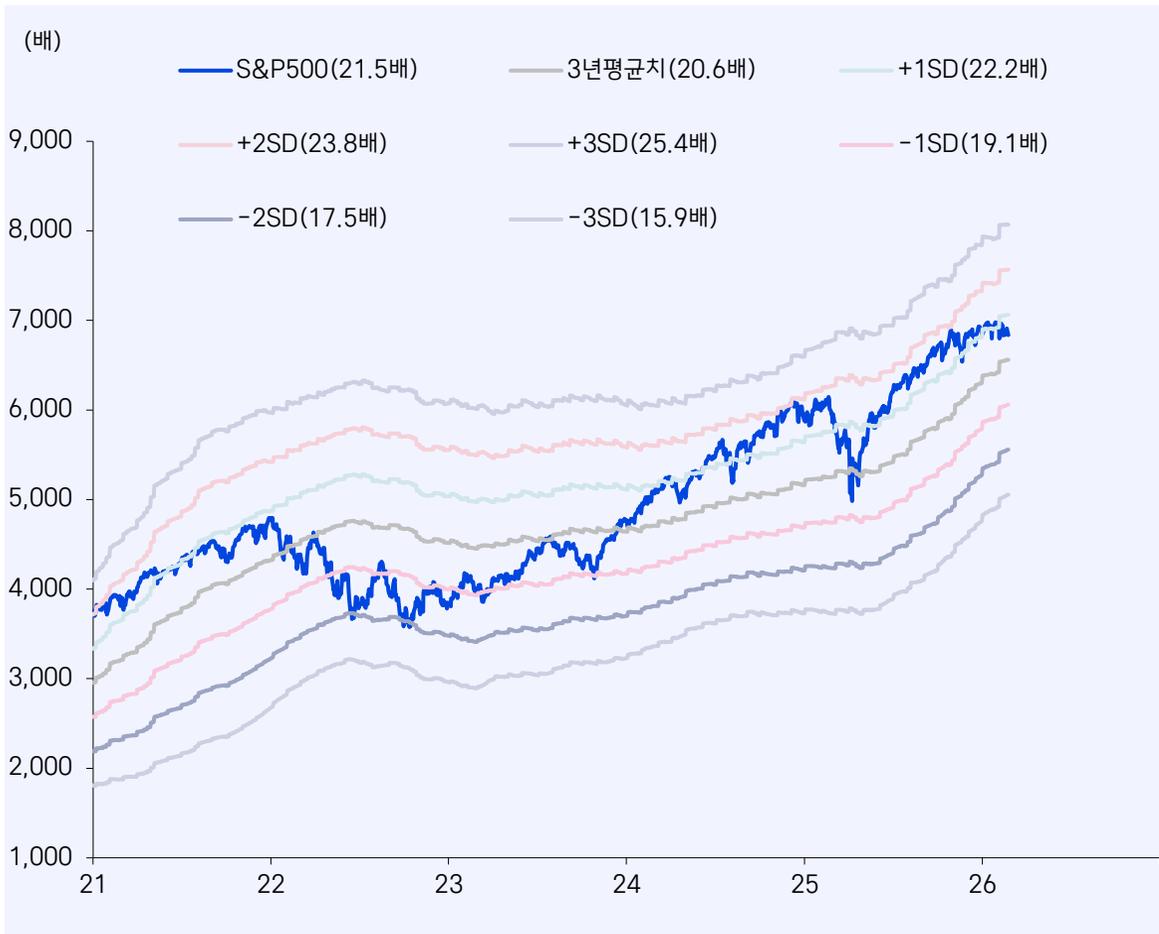
[연산 위치] 로컬 연산 + 클라우드 에이전트 연결

	폼팩터	대표사례	주요 특징
웨어러블	글래스	메타 Ray-Ban, 애플 AI Glass	시각 기반 멀티모달인식 정보 오버레이
	스마트링&밴드	갤럭시링 2, Oura Ring4, Whoop 5.0	AI헬스케어, 제스처 컨트롤러
	이어러블	AirPods Pro3, Bose QC Ultra AI	골전도기반 AI에이전트, 실시간 대화 요약
	핀/펜던트	Humane AI Pin, Plaud NotePin	스크린리스 인터페이스, 음성중심 에이전트
전통단말	스마트폰	갤럭시s26, iPhone17	온디바이스 AI 고도화
	AI PC&태블릿	코파일럿+ PC	오프라인 작업 최적화, 워크플로우 자동화
	AI 가전	삼성/LG AI가전, Apple Homepad	공간인지 기반 최적화
	Physical AI	Tesla Optimus, Razer Project AVA	물리적 에이전트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언론보도,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미국 연간밴드 : 6,500~7,600pt으로 하향

'26.3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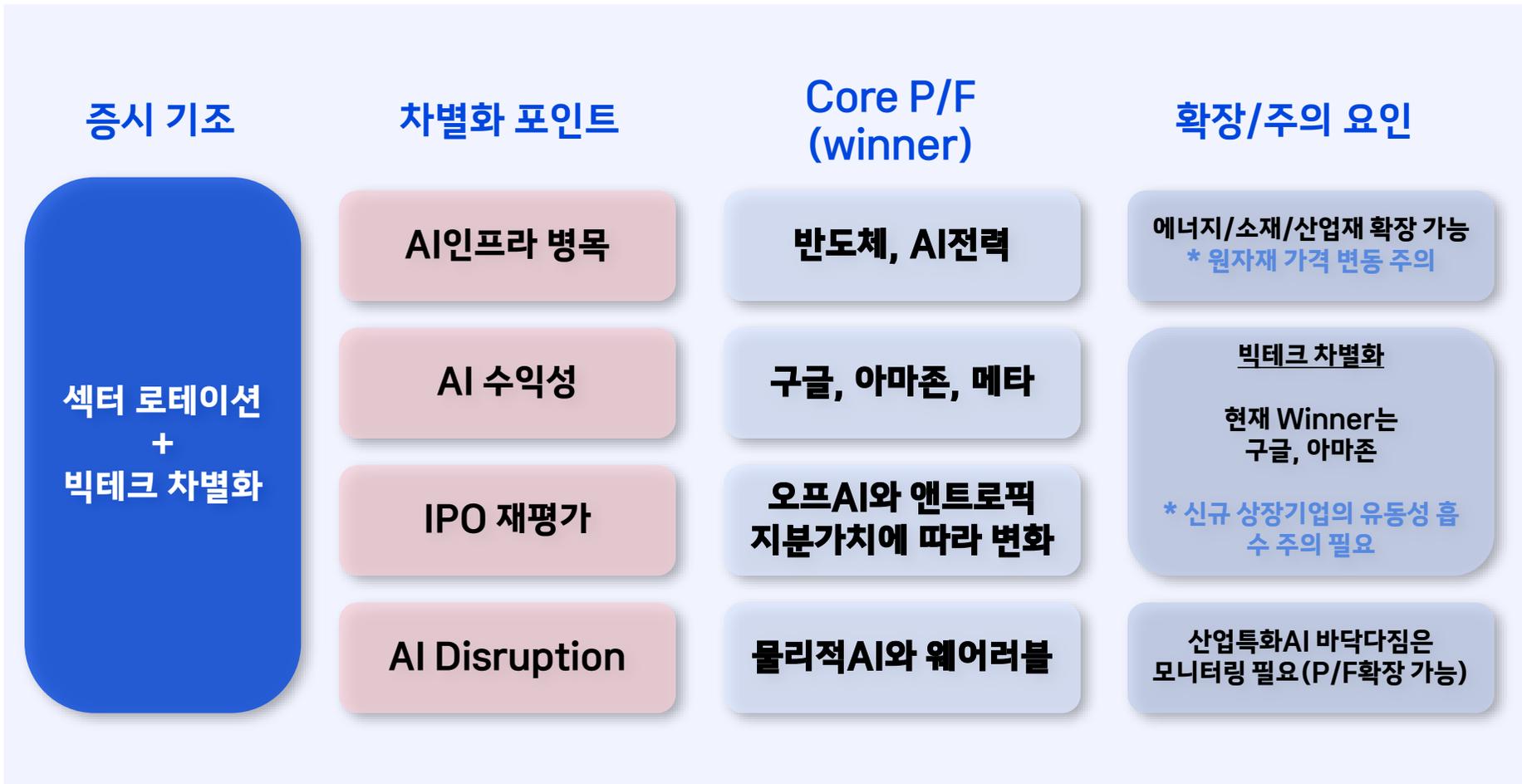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연간 밴드: 6,500~7,600pt

- 현 PER 은과거평균치의 +1표준편차(22.2배)를 하회하는 21.5배 수준
- 현재 증시는 AI Disruption과 인프라 병목에 집중: 밸류에이션 확장 제한
- 향후 B2B 사업 성과, 온-디바이스 제품 출시, 대형 IPO 고려 **PER 22.2배까지 재반등 가능**
- 현 EPS에서 +8% 상향조정된 수치(343pt)에 PER 22.2배 적용한 **7,600pt를 밴드 상단으로 제시(상승 여력: +11%, 기존 7,900pt에서 하향)**
- **투자 의견은 OW 유지**
- 차별화 및 로테이션 국면에서는 지수 플레이 보다는 **섹터플레이 전략이 유효하다 판단**
- AI인프라(전력, 핵심설비)섹터 주가 상승 전망
- AI 확장 과정에서 수익 가시화가 높은 물리적시가 상대적으로 우위

[섹터 플레이 전략] 빅테크 차별화와 P/F 전략

'26.3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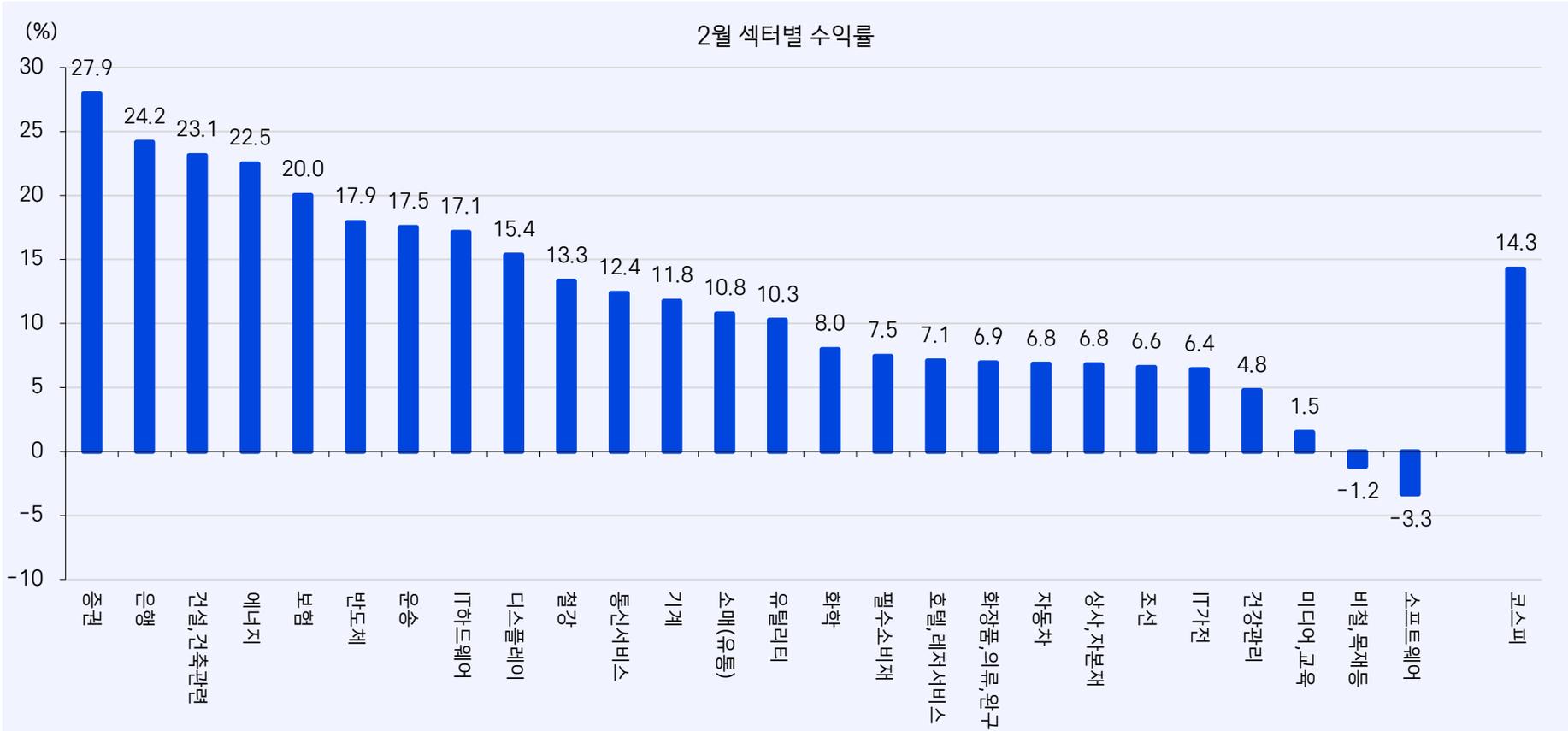
주: 2월 23일 기준, 자료: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26.3월 금융시장 전망
국내 주식시장 전망

정책과 반도체가 이끈 한국증시

'26.3월 금융시장 전망

한국증시 상승 요인은 주주친화정책(상법개정 +배당) 및 반도체 업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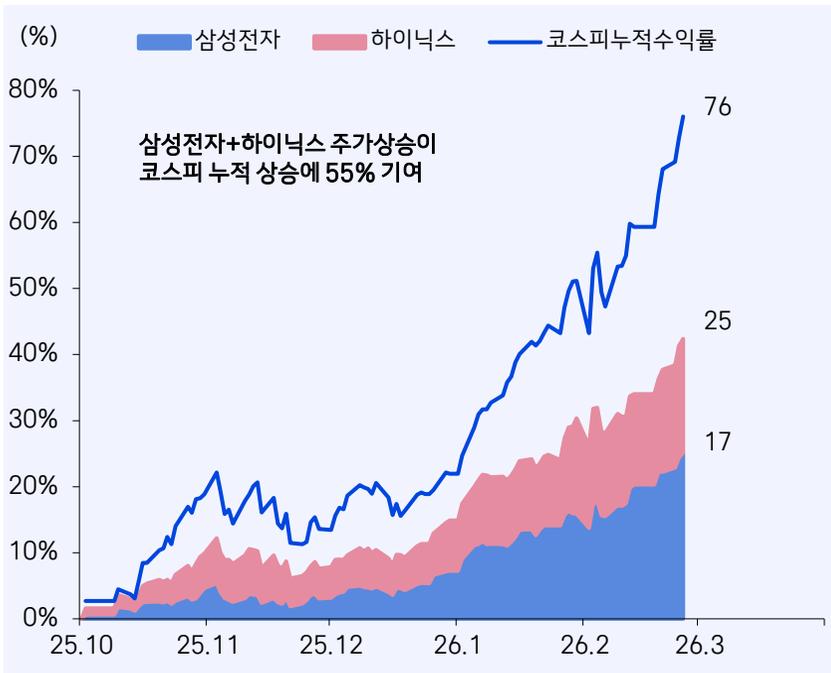
주: 2월 24일 기준,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반도체 이익] 이익 상향조정 모멘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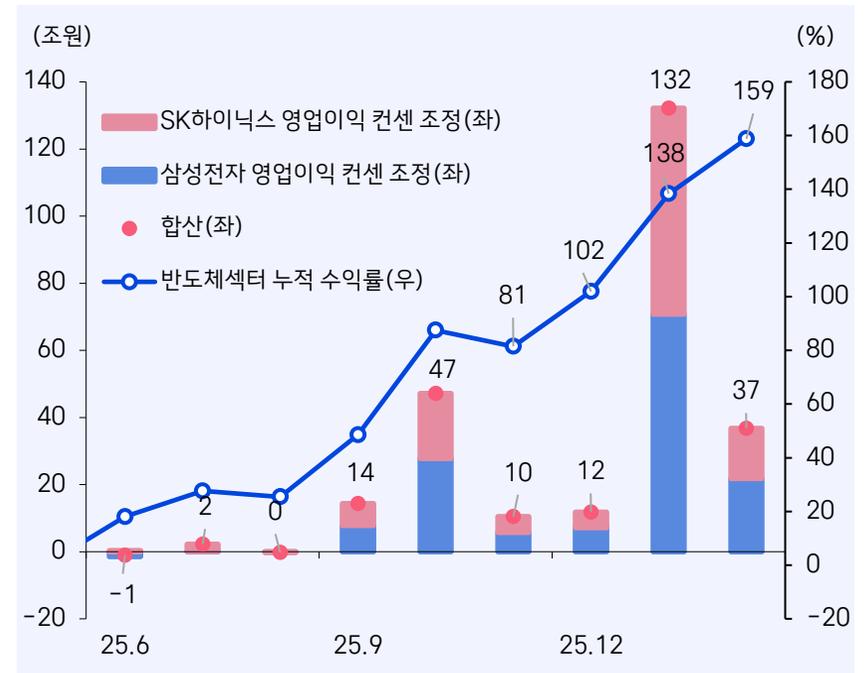
'26.3월 금융시장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 상승 주도 : 2월 이익 상향조정 강도 소폭 완화

-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계 영업이익은 ['25.6월] 78조 → [12월] 164조 → ['26.1월] 297조 → ['26.2월] 333조원
- 반도체 이익 상향조정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반도체의 증시 주도력 강화 전망
- 반도체 업종 특성상 업사이클에서는 실적 발표월(1,4,7,10월) 이익 상향조정이 가파르다는 계절성을 염두해둘 필요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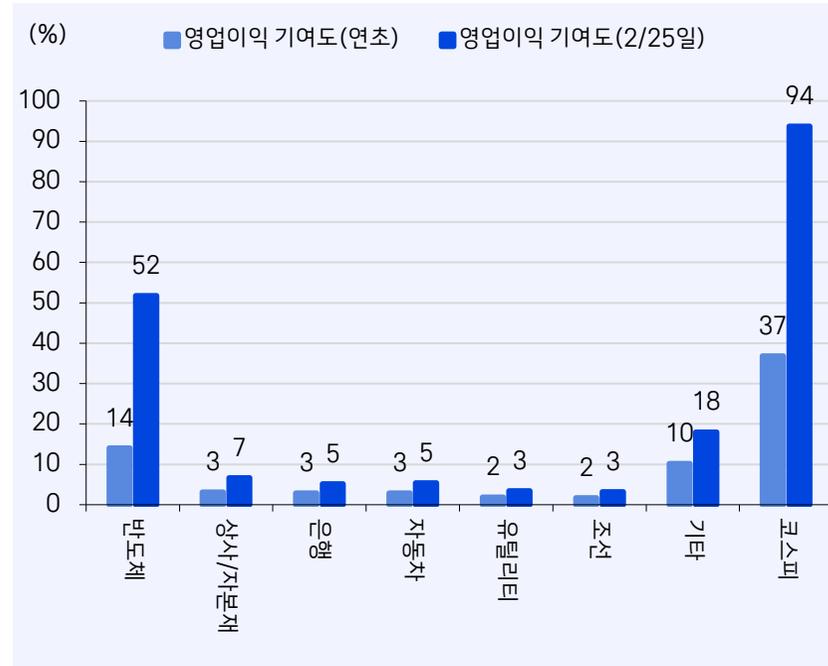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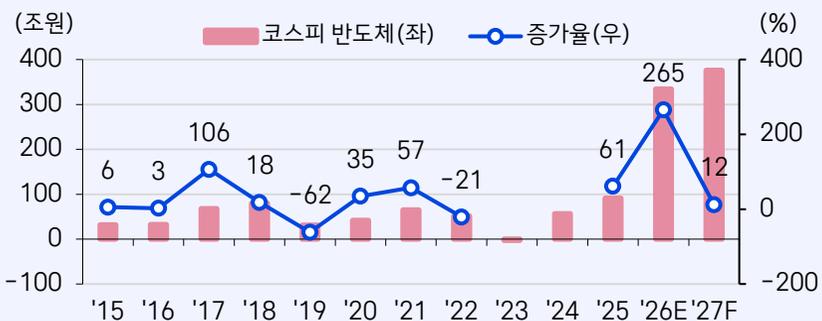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이익] 대형 반도체의 국내 기업 이익 주도력 강화

'26.3월 금융시장 전망

반도체 업사이클(이익 기여도 37%)에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율 +94%로 상향조정

- '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94%로 연초 37%에서 +57%p 상향조정 : 반도체 이익 기여도의 +38%p 상향조정에 기인
- AI인프라 병목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영업이익 상향조정은 코스피 전체 이익 상향조정으로 이어져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수급] 밸류 플레이어 외국인, 적극적 매수세 기대 ↓

'26.3월 금융시장 전망

Value Player인 외국인, 현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적극적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 과거 외국인들은 반도체 사이클에서 반도체 섹터를 3~18조원 순매도하는 모습
- 전형적인 밸류 플레이어로 PBR이 높으면(매도 콜 기준 1.4배 추정) 매도하고, PBR이 낮아지면 매수하는 패턴
- 현재 반도체 섹터의 12개월 선행 PBR은 2.3배로 높은 수준이기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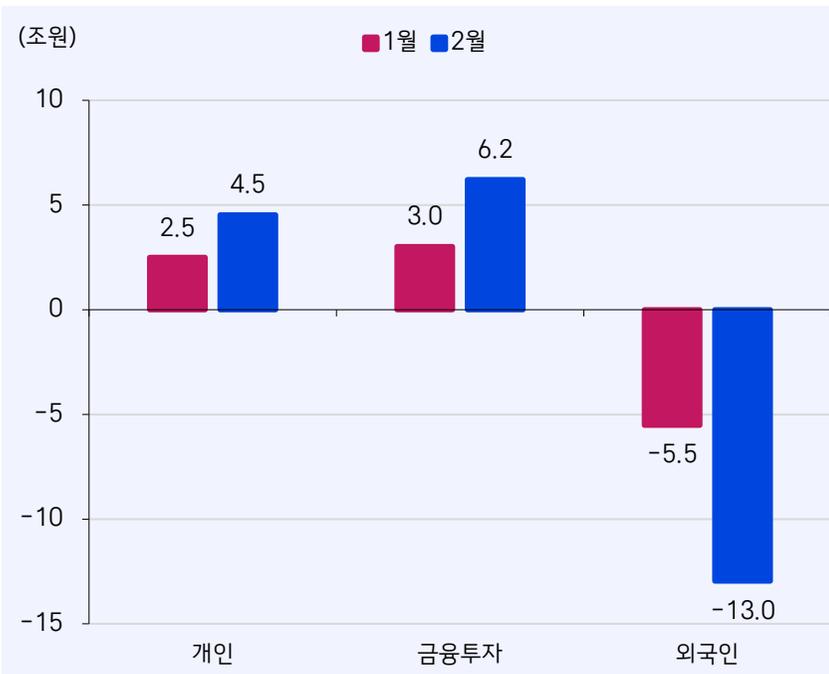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외국인 자금 공백 국면, 국내 수급이 증시 주도

'26.3월 금융시장 전망

외인 매도 국면에서 국내 수급(개인+금융투자) 주체가 반도체 섹터 상승을 견인

- 외국인은 반도체 섹터를 1월, 2월에 각각 5.5조, 13조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금융투자(개인 ETF 추정) 합산 5.5조, 10.7조 순매수
- 반도체에 대한 밸류매도 국면에서 국내 수급 주체들이 반도체 섹터 상승을 견인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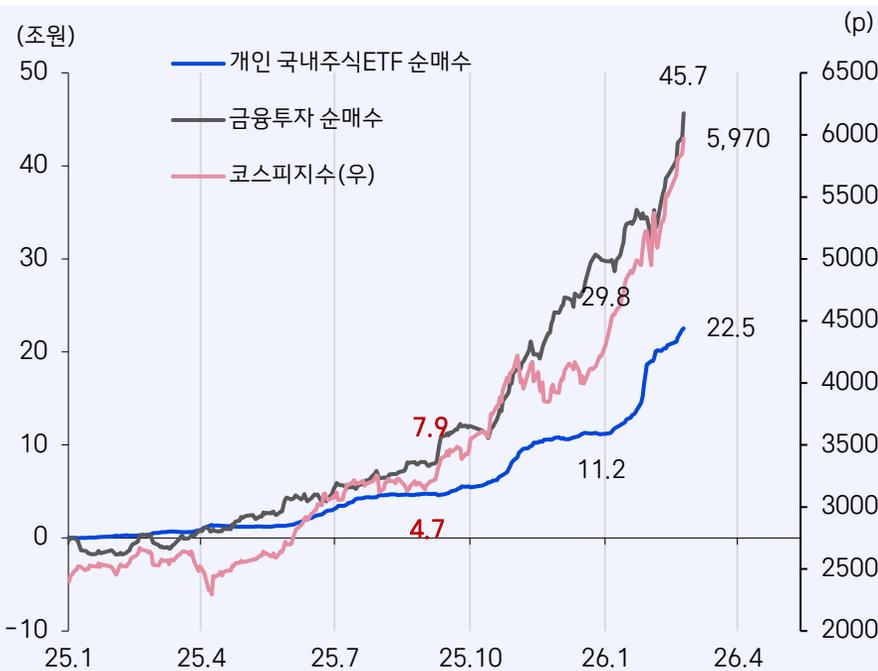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증시 상승 주도한 개인 (개인 금융자산 이동)

'26.3월 금융시장 전망

2021년과 같은 증시 방향성을 정할 수급주체

-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로 유출된 외화 복귀를 유도: 가계 해외주식 잔고는 2020년 이후 급증하여 1,685억달러 기록
- 해외주식 잔액의 10% 수준 복귀 전개 시, 2021년과 같이 개인투자자가 증시 상승을 주도할 수급주체가 될 것
- 한편 개인의 금융자산도 현금 및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장기 수급 기반 강화 전망



	(조원)	'23년말	'25년 9월말
가계 금융자산	5,209	(비중 %)	5,980 (비중 %)
현금 및 예금	2,414	46.3	2,663 44.5
단기저축성	1,395	26.8	1,518 25.4
장기저축성	337	6.5	350 5.9
보험, 연금준비금	1,458	28.0	1,642 27.5
채 권	169	3.2	192 3.2
단 기	50	1.0	51 0.9
장 기	116	2.2	131 2.2
해외채권	11	0.2	29 0.5
주 식	1,128	21.6	1,432 23.9
국내주식	936	17.9	1,058 17.7
해외주식	89	1.7	196 3.3
펀 드	104	2.0	178 3.0

주: 2월 25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예탁결제원,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코스피 연간 밴드 상단을 6,900pt로 제시

'26.3월 금융시장 전망

밴드 상단을 EPS +5% 상향 및 PER 10.3배 적용한 6,900pt로 제시

- 연초 410pt였던 KOSPI EPS는 50% 상승한 630를 기록 : 밸류에이션 확장없이 이익성장 반영하며 주가 상승
- 12MF EPS는 현수준에서 +5% 상향(636) 및 과거 평균 PER 수준 흐름(10.3배) 적용, 연간밴드 상단 6,900pt제시(상승 여력 : +10%)
- 반도체センチ멘트 변화(반도체 가격 반락), 대내외 정책 변화(美 관세 또는 증시 구조개혁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 상승 모멘텀 둔화 및 어닝시즌 전까지 시장의 관심은 중소형주 및 소외주가 될 것

		12개월 예상 EPS				
		542	586	630(현)	674	718
12개월 예상 PER	9.0	4,877	5,274	5,671	6,068	6,465
	10.0	5,424	5,866	6,307	6,749	7,190
	10.3	5,581	6,036	6,490	6,944	7,399
	11.0	5,961	6,446	6,931	7,416	7,901
	12.0	6,503	7,032	7,561	8,090	8,620



주: 2월 24일 기준,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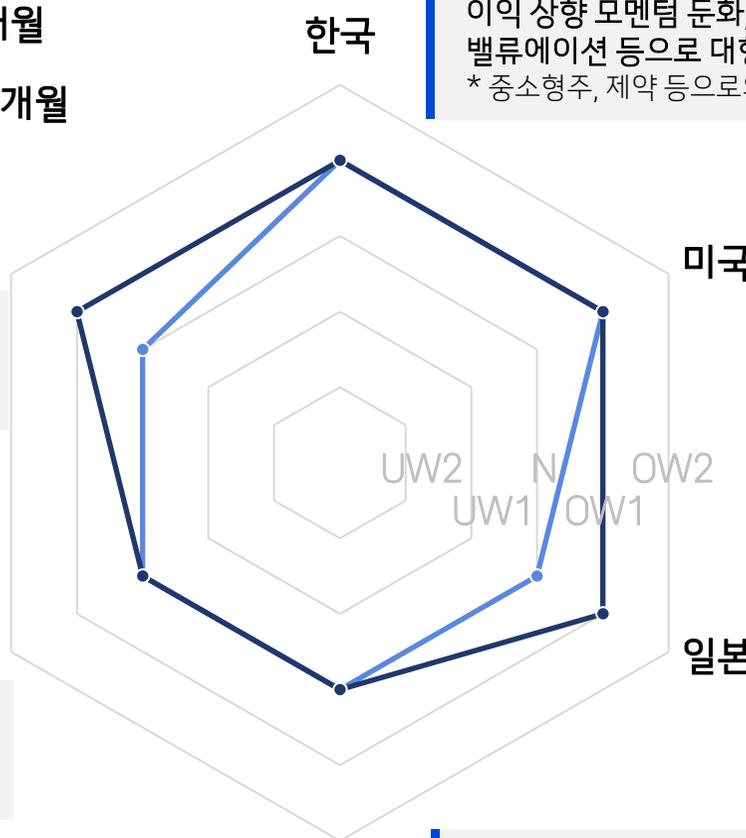
'26.2월 금융시장 전망
글로벌 주식 하우스 뷰

House View - 주식시장 (주식 OW 유지)

'26.3월 금융시장 전망

글로벌 주식시장 뷰

--- 3개월
--- 12개월



한국

이익 상향 모멘텀 둔화, 높은 반도체 밸류에이션 등으로 대형주 모멘텀 약화
* 중소형주, 제약 등으로의 확산 전망

미국

AI 병목 관련 섹터 중심의 OW 유지
* 연말 S&P500 7,600pt 하향

일본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 가능하나 높은 정부부채 고려 지수 상승에 대한 되돌림 가능성 높음. N 의견 유지

유로

이익 하향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및 재정 우려 등은 증시 하방요인

인도

낮은 밸류 매력도, AI 생태계 소외 등 고려
* 소비재 관련 섹터의 선별적 투자 유효

중국

매크로 회복 미미(디플레 개선 X) Physical AI 중심 선별적 투자전략
* 과장판 및 휴머노이드 관련 섹터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관련법령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를 결정하므로, 본 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관련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